

社說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월5일 어린이의 날, 5월8일 어버이 날, 5월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어린이날은 1923년부터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티끌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기념일로 법정 공휴일이다.

3·1운동 이후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해 1923년 5월 1일, 색동회를 중심으로 방정환 외 8명이 어린이날을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치렀으므로 비로소 어린이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어버이날은 1956년 국무회의에서 해마다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해 17회까지 행한 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서 어버이날로 개칭해 현재까지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제정 목적은 범국민적 효사상 양양과 전통 가족제도의 계승 발전은 물론,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자, 전통 모범가정, 장한 어버이를 발굴해 포상·격려하는 데 있다.

어버이날은 본래 한국에서 생긴 것은 아니고, 사순절의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어버이의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 교회로 찾은 영국·그리스의 풍습과, 1910년경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일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5월의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부터 정식 기념일이 된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에

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죽은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각종 집회를 열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한다.

1958년 5월 8일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적십자사의 날을 맞아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스승의 날을 제정하는 의견이 제기된 뒤 1963년 10월 서울과, 1964년 4월 전주에서 청소년 적십자단의 각도 대표가 모여 회의를 열고, 사은 행사를 가지기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1963년 제12차 청소년적십자사 중앙학생회의에서는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할 것을 권장했다. 1964년에는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도 5월26일로 정했다. 1965년에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

이때부터 전국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다가 몇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은 뒤 1973년, 국민교육헌장 선포일인 12월 5일에 행해 오고 있다. 제정 목적은 범국민적 효사상 양양과 전통 가족제도의 계승 발전은 물론,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자, 전통 모범가정, 장한 어버이를 발굴해 포상·격려하는 데 있다.

5월의 기념일 중심에는 가정이 있다.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서 있을 때 어린이에 대한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고 어버이에 대해 자식들의 감사의 표현이 나올 것이며 나아가 스승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가정의 평화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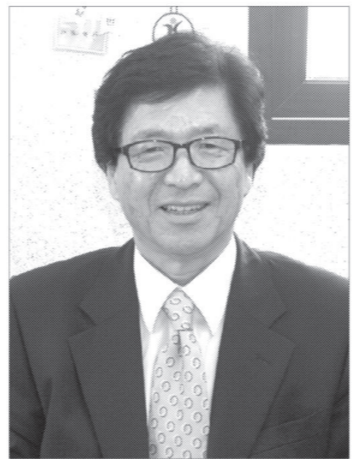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새삼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008 새해설계 10 경기도교육위원 조돈창

지역교육청 학습지원센터로 전환 적극 반대

교사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다양화 집중화 필요

“새정부 들어 지역교육청을 학습지원센터로 전환하고 재정권과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주겠다는 의지에 대해 교육계 모두가 반대사를 밝히고 있으며 정기국회에서 이를 강행 처리하게 되면 교육계 모두가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교육청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조돈창(사진) 위원은 또 최근 경기도학교재정 중앙기획회의 5년마다 한번씩 세워지는데 정권이 바뀌어 현 정권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변경심의의 하고 있는 것도 교육계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현재 군단위 88개 학교를 대상으로 계속형 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등 4개 학교를 지정했으나 이미 기속사가 있어 도농복합시 면단위 소재 학교에도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울러 조 위원은 초등학교에 어린이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여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어렸을때부터 신문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천 관내 100명 미만의 학교에 대해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촌지역 전

교원모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밤에도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누구나 책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개 지방자치단체에 1개 우수교 육성 학교로 선정된 일등고등학교가 우수교에서 제외돼 2008년도에 예산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좋은 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울러 교실공기의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공기오염측정기를 1대당 5천만원을 들여 각 지역교육청에 배치하였는데 조작성이 있는 인력이 없어 기존인력 연수를 통해 교실오염이 심각한 곳을 찾아 오염원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복지에 관한 교원사택이 9월1일 준공되며 이동면, 가산면, 내촌면, 군내면 선단동 지역교사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초학습부진아 교육문제도 심각했으나 멘토교사 워크샵, 연수와 소의상담지원단 조직운영, 방학중 캠프운영, 담임교사 책임지도 등을 추진해 크게 해설했다.

조 위원은 교육은 인성에필요 교육과 칭찬교육이며 큰 문제없이 잘 될 것이라며 포천교육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부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부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부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부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부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부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부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부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부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부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부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우 국회의원 당선인 환영식

김해김씨 내촌면 진목2리 곡산종친회



김영우 국회의원 당선인 환영식(중대표 김춘원)은 5월4일 오후1시 포천시 내촌면 진목2리 사당에서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인 김영우 당선인을 초청해 환영식을 가졌다.

이날 환영식은 김영우 당선인이 조상께 고우제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했다. 김 당선인은 조상님들의 음덕에 감사하는 뜻에서 술을 따르고 절을 했다.

이날 환영식에서 김춘원 종중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김영우 당선인은 김해김씨 시조인 김수로왕 74세손 직계 안경공파 18세손 신자, 회자 할아버지의 10세손으로 출생하여 성장하면서 평소 갈고 닦은 인품과 실력으로 2008년4월9일 제18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서 우리 김해 김씨 문중은 물론 포천·연천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영광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또 “김영우 국회의원 당선인은 우리 후손에 큰 희망과 노력하면 된다는 꿈과 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훌륭한 전통을 세웠으며 앞으로 포천·연천 지역사회의 수준 높은 삶의 개선과 발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한편 국가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우 국회의원 당선인은 “어려운 선거전에서 김해김씨 종친회에서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김해김씨 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밝히고 “앞으로 고향 어르신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포천시와 연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창무 김해하씨 종친회장은 “김영우 당선인이 포천시를 다른 곳과 대등한 입장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고 재선, 3선, 4선 등 종친회원이 돼서 큰 정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중현 김해김씨 종친회 소흘읍회장은 “우리 종친회에서는 단소리보다는 큰소리를 많이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김영우 당선인을 도와주고 당선인은 큰소리를 잘 들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환영식은 김해김씨 종친회 소흘읍회장은 “우리 종친회에서는 단소리보다는 큰소리를 많이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김영우 당선인을 도와주고 당선인은 큰소리를 잘 들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환영식은 김해김씨 종친회 소흘읍회장은 “우리 종친회에서는 단소리보다는 큰소리를 많이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김영우 당선인을 도와주고 당선인은 큰소리를 잘 들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환영식은 김해김씨 종친회 소흘읍회장은 “우리 종친회에서는 단소리보다는 큰소리를 많이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김영우 당선인을 도와주고 당선인은 큰소리를 잘 들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환영식은 김해김씨 종친회 소흘읍회장은 “우리 종친회에서는 단소리보다는 큰소리를 많이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김영우 당선인을 도와주고 당선인은 큰소리를 잘 들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만 포천시장 출마선언

“한나라당 기여한 바 크다” 공천자신

이상만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4일에 치러지는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상만 예비후보 지지자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상만 예비후보는 “포천시의 상황은 총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관에 직면해 있고, 시민들의 삶이 비후보 지지자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상만 예비후보는 “포천시의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추대인 시기다. 이러한 막중한 소명을 기꺼이 맡고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해 중앙당 혹은 김영우 국회의원의 당선자와 사전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상만 예비후보는 “사전교감은 전혀 없었다. 다만 그동안 한나라당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한나라당 공천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공천이 무산될 경우 무소속 출마 의향이 있는느냐는 질문에는 “공천을 못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생각한 적이 없다”면서 직답을 피했다. 아울러 고조흥 국회의원과 공천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동안 그분을 모셔왔고 보궐선거 출마한다는 뜻을 피력했기 때문에 고조흥 국회의원께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만 예비후보는 “포천시의 상황은 총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관에 직면해 있고, 시민들의 삶이 비후보 지지자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상만 예비후보는 “포천시의

이상만 예비후보는 “포천시의 상황은 총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관에 직면해 있고, 시민들의 삶이 비후보 지지자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상만 예비후보는 “포천시의

법질서 확립 지역치안 실무협의회 개최

포천경찰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실무자와 함께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는 5월7일 오후2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무과장, 법질서확립 T/F팀원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실무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참석한 위원 소개 및 경찰서장 인사말, 그리고 법질서 추진사항 보고(PPT), 자유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2월29일 발족식 이후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대해 보고했으며, 특히 포천시 특수시책으로 순찰차 지붕에 LED 전광판을 부착하여 시민들



에 홍보한 내용이 돋보였다. 이후, 자유토론시간에는 6대 핵심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배움터 지킴이 예산지원방안, 관공서 집회시위 자제경비 방안, 주취차 처리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월29일 발족식 이후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대해 보고했으며, 특히 포천시 특수시책으로 순찰차 지붕에 LED 전광판을 부착하여 시민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5월 1일 ~ 5월 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 2008. 4. 30 포천신문 제411호 발행
2008. 5. 10 포천신문 제412호 발행
2008. 5. 20 포천신문 제413호 발행예정

